

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

까치내 놀이상여

日時：1983. 10. 22. 14:00

場所：慶尚北道 安東市 公設運動場

忠 清 北 道
藝 總 忠 北 支 部

까치내 놀이상여

작품발굴지도 김 영 진 (청주대학교수)

청주 까치내(鵲川)놀이상여는 한문으로는 여제(輿祭)라하나 속칭 ‘도듬이’라고 하는 것으로 옛날 마을에서 상여(喪輿)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행하는 민속의식인데 여기에 놀이상여가 곁들어 있다.

상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장례(葬禮)에서 시체를 집에서 무덤까지 운반하는 제구(祭具)인데 이것이 흉례(凶禮)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가지 속신(俗信)과 금기(禁忌)가 있다.

그런 까닭으로 새 상여를 마을에서 장만했을 때도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부정(不淨)을 막으며 새 상여를 가질러 가는날 아침에 징을 울려 상여꾼을 모은 뒤 마을에 있는 디딜방아를 떼여 원새끼로 묶어 들고 농악의 사물인 쟁가리, 징, 북, 장고를 앞세워 치면서 상여를 가질러 떠난다.

그리고 상여를 꾸민 곳에서 가지고 간 디딜방아를 새 상여에 싣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로 돌아온다. 디딜방아를 싣는 것은 새 상여에 잡귀의 범접을 막고 부정을 예방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.

새 상여를 가지고 오는 길에 마을입구에 이르러서는 싣고 온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놓고 서낭당에 와서는 고사(告祀)를 지낸다음 마을로 들어와 “도듬이”를 한다.

즉 요령잡이를 상여에 태우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상노인을 태운다. 이것은 새 상여에 천수(天壽)를 누린 상노인의 장례를 첫번 치루게 해달라는 뜻이며 그것은 또 앞으로 마을에 젊은사람이 죽은 애상(哀喪)을 없게하고 상노인들의 호상(好喪)만 있게 해 달라는 기원(祈願)인 것이다.

새 상여에 탄 상노인은 자기 집으로 상여를 안내해서 상여꾼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광목1필을 상여에 얹어주어 그들에게 사례를 한다. 왜냐하면 상노인은 새 상여에 타기를 바랄뿐만 아니라 이 노인이 죽어 새 상여에 첫번 타게 될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우어 수의(壽衣)를 마련해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.

이렇게 놀이상여가 끝나면 상여를 보관해 두는 ‘상여집’으로 가서 잘건우어 두게 된다.

이 까치내 놀이상여는 1920년까지 전승되다가 중지된 것을 이번에 발굴 재연하게 된 것이다.

출 연 자 명 단

요령잡이	홍 복 룡 남 51세	허 재 기 남 50세
상 여 군	백 남 준 남 50세	윤 갑 용 남 59세
	오 무 환 남 55세	김 병 대 남 50세
	이 상 호 남 56세	김 병 환 남 54세
	변 갑 수 남 50세	김 희 식 남 68세
	변 종 록 남 50세	박 세 창 남 55세
	유 승 백 남 59세	박 문 규 남 66세
	이 종 권 남 67세	정 복 철 남 61세
	우 흥 운 남 70세	김 동 하 남 51세
	강 호 준 남 68세	윤 석 균 남 69세
	김 인 환 남 50세	조 준 호 남 50세
	김 만 기 남 50세	정 응 교 남 66세
정 승 선 남 66세	김 은 수 남 50세	
상 노 인	이 용 운 남 87세	
제 관	김 영 태 남 50세	이 광 희 남 53세
	이 장 북 남 79세	
사 물	이 종 환 남 60세	김 대 관 남 57세
	김 영 찬 남 69세	김 용 운 남 61세
마을사람	이 원 뢰 남 66세	신 동 준 남 67세
	이 석 봉 남 79세	유 인 순 여 50세
	강 정 분 여 54세	조 귀 조 여 59명

(총 : 40명)

忠 清 北 道 代 表 團

- 단 장 李 鳳 學 (충청북도부지사)
- 부단장 禹 潑 (예충충북지부장)
- " 權 熙 鐸 (청 주 시 장)
- 총 무 宋 周 憲 (충북문화공보담당관)
- 진 행 金 清 永
- " 全 在 明
- " 金 壽 年